

# Market Conditions

『Monthly』

2017. 01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er

최 성 수 대리 / 010-3144-2110



**K2** LOGICS



# Contents

01. 해운

02. 항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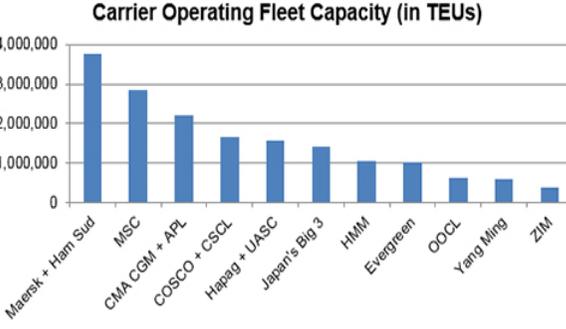
03. 물류

04. 무역

05. 2017 유통시장 전망

06. 2017 무역업계 전망



구분	시황	특이사항 (시황 상세)																								
아시아	<p>◆ G6, 中 춘절 대응 亞-유럽·북미항로 감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7년도 2월부터 감편 실시</li> <li>- 중국 춘절을 맞아 내년 2월 아시아발 유럽, 북미에서 일부 루프에 대한 감편을 실시</li> <li>- 중국 춘절을 맞아 컨테이너 물동량의 일시적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li> </ul> <p>&lt;출처 : 코리아쉬핑가제트&gt;</p>																									
중남미 & 미주	<p>◆ 중남미항로/ 선복감축으로 해상운임 2000弗대까지 끌어올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말 밀어내기 물량...1월1일 750弗 GRI</li> <li>- 동·서안을 막론하고 대형화된 선박들이 전환배치(캐스케이딩)되면서 공급과잉</li> <li>- 작년 상하이항운거래소에서 발표한 브라질 산투스행 운임은 2908달러로 최고치</li> <li>- 선사들은 연말 시황 상승세에 힘입어 1월 1일부터 750달러의 추가 GRI 적용</li> </ul> <p>★ 북미항로/ 한진해운 공백으로 시황반전 '해상운임 U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파나마운하 확장, 미 동안 선박 대형화 급물살</li> <li>- 북미 서안 "선박 대형화 지속" / 앞다퉈 선대 대형화</li> <li>- 파나마 운하 확장으로 북미동안 선박이 12% 상승하여 선사들이 선복감축</li> <li>- 각국의 한진선박 입항거부, 억류 등으로 경쟁선사의 뜻 밖의 호재</li> <li>- 1월 중순까지 GRI를 통해 서안 2천달러 동안 3천달러까지 인상할 계획</li> </ul> <p>&lt;출처 : KSG&gt;</p>	<p>◆ 국제유가 현황 (단위 : \$/ 배럴)</p> <table border="1" data-bbox="1363 619 1916 819"> <tr> <td>WTI 12.29.</td> <td>53.77 ▼ 0.29(-0.54%)</td> </tr> <tr> <td>두바이유 12.29.</td> <td>52.12 ▼ 0.01(-0.02%)</td> </tr> <tr> <td>브렌트유 12.29.</td> <td>56.14 ▼ 0.08(-0.14%)</td> </tr> </table> <p>&lt;출처 : 뉴욕상업거래소(NYMEX) - WTI, 두바이 런던국제거래소(ICE) - 브렌트&gt;</p>	WTI 12.29.	53.77 ▼ 0.29(-0.54%)	두바이유 12.29.	52.12 ▼ 0.01(-0.02%)	브렌트유 12.29.	56.14 ▼ 0.08(-0.14%)																		
WTI 12.29.	53.77 ▼ 0.29(-0.54%)																									
두바이유 12.29.	52.12 ▼ 0.01(-0.02%)																									
브렌트유 12.29.	56.14 ▼ 0.08(-0.14%)																									
공급	<p>◆ K라인, 中-동남아 직기항 'CSI'서비스 시작</p> <p>2500TEU급 선박 4척으로 운항하는 위클리 서비스 / SITC와의 협업</p> <p>운항경로 : 칭다오-상해-닝보-호찌민-자카르타-세마랑-샤먼-칭다오 순</p> <p>&lt;출처 : 한국해운신문&gt;</p>	 <table border="1" data-bbox="1350 976 1916 1305"> <caption>Carrier Operating Fleet Capacity (in TEUs)</caption> <thead> <tr> <th>Carrier</th> <th>Capacity (TEUs)</th> </tr> </thead> <tbody> <tr><td>Maersk + Ham Star</td><td>~3,800,000</td></tr> <tr><td>MSC</td><td>~2,800,000</td></tr> <tr><td>CMA CGM + APL</td><td>~2,200,000</td></tr> <tr><td>COSCO + CSCL</td><td>~1,800,000</td></tr> <tr><td>Hapag + UASC</td><td>~1,600,000</td></tr> <tr><td>Japan's Big 3</td><td>~1,400,000</td></tr> <tr><td>HMM</td><td>~1,200,000</td></tr> <tr><td>Evergreen</td><td>~1,000,000</td></tr> <tr><td>OOCL</td><td>~800,000</td></tr> <tr><td>Yang Ming</td><td>~600,000</td></tr> <tr><td>ZIM</td><td>~400,000</td></tr> </tbody> </table>	Carrier	Capacity (TEUs)	Maersk + Ham Star	~3,800,000	MSC	~2,800,000	CMA CGM + APL	~2,200,000	COSCO + CSCL	~1,800,000	Hapag + UASC	~1,600,000	Japan's Big 3	~1,400,000	HMM	~1,200,000	Evergreen	~1,000,000	OOCL	~800,000	Yang Ming	~600,000	ZIM	~400,000
Carrier	Capacity (TEUs)																									
Maersk + Ham Star	~3,800,000																									
MSC	~2,800,000																									
CMA CGM + APL	~2,200,000																									
COSCO + CSCL	~1,800,000																									
Hapag + UASC	~1,600,000																									
Japan's Big 3	~1,400,000																									
HMM	~1,200,000																									
Evergreen	~1,000,000																									
OOCL	~800,000																									
Yang Ming	~600,000																									
ZIM	~400,000																									
전망	<p>◆ 해운 산업 : 다소 비관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복공급의 과잉, 선박연료인 벙커가격의 상승 → 선사들의 수익성 ↓</li> <li>- 정기선 선사들 간 합병도 지속적으로 전개될 전망</li> <li>- 이스라엘 선사인 ZIM라인 : 피합병 선사가 될 전망</li> </ul> <p>&lt;출처 : 카고뉴스&gt;</p>																									

구분	시황	특이사항
동향	<p>◆ 2년만에 최고치 달성한 항공화물 운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12월 항공운임이 2년만에 최고치를 달성한 것으로 분석됐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월 평균 항공운임 : kg당 3.35달러</li> <li>- 작년 대비 평균 6% 상승한 수치</li> <li>- 기본운임 + 유류할증료 + 보안할증료 포함</li> </ul> </li> </ul>  <p>◆ 내년 항공시장 '맑음' 해운은 '흐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적 항공사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영업이익 20%감소 / 남미 항공사 80%확대 (경제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 경제성장 부진, 테러리즘 위협 등으로 여객 수요 ↓</li> <li>- 개발도상국 시장 수요 증가 : 가치분 소득 증가 + 규제완화 등 호재 작용</li> </ul> </li> </ul> <p style="text-align: right;">&lt;출처 : 카고뉴스&gt;</p>	
ISSUE	<p>◆ 무너지지 않는 공식 "2016 하반기 성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집계 : 수요가 전년동기 대비 8.2%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물 부문의 평균 적재율 : 46.2%</li> <li>- 중동 항공사들의 맹주 지속 / 아시아, 북미노선 수요침체로 신장세 둔화</li> <li>- IATA "세계 항공화물 시장 수요는 올 연말 최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li> <li>- 2017년도 세계 무역의 견조한 상승세 조짐이 있어 상당부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li> </ul> </li> </ul> <p style="text-align: right;">&lt;출처 : 항공뉴스&gt;</p> <p>◆ LOT 폴란드항공, 인천-바르샤바 직항노선 신규취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나라와 폴란드를 잇는 하늘길이 열렸다.'</li> <li>▪ 해당 노선에 LOT폴란드항공은 최신 보잉787 드림라이너(252석) 기종을 투입해 주 3회 운항할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될 것으로 기대, 화물 및 여객 편의 대폭 개선 (직항)</li> <li>- 인천공항의 허브 경쟁력 강화 : 연간 6만 명의 신규 항공 여객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li> </ul> </li> </ul> <p style="text-align: right;">&lt;출처 : 항공뉴스&gt;</p>	

구분	내용
물류	<p>◆ 태국과 무역 수월해진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세청, 태국 관세청과 AEO MRA 체결</li> </ul> <p>한국과 태국 간에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상호인정약정(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이 체결됐다. 이에 따라 양국 수출기업들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교역도 촉진될 전망이다.</p> <p>천홍욱 관세청장은 지난 27일 태국에서 개최된 한국-태국 관세청장회의에서 꾸릿 솜बाट시리(Kulit Sombatsiri) 태국 관세청장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을 체결했다.</p> <p><u>AEO MRA는 세관당국이 상대 AEO 업체에 대해서 자국 AEO 업체와 동일한 무역 혜택을 부여하는 약정을 말한다.</u></p> <p>관세청은 체결 이후 약 3개월의 시범운영을 거쳐 약정이 발효되면 우리나라의 AEO업체가 태국에 수출할 때 태국 관세 당국으로부터 세관 검사 축소, 우선 통관 등 혜택을 받게 되어 수출기업 경쟁력 제고 및 양국 간 교역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p> <p>또 태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에 발생한 통관 애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태국 관세청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p> <p>관세청은 "앞으로도 주요 교역국 및 신흥 진출 지역 거점국가와의 관세청장회의 및 AEO MRA 체결을 확대해 우리 기업들의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과 해외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전략적 관세 외교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p> <p style="text-align: right;">&lt;출처 : 쉬핑뉴스넷&gt;</p> <p>◆ 국토부, 카자흐스탄과 '유라시아대륙철도' 활성화 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리 물류기업 건의사항 전달...물류협력 확대 가능성 보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라시아 철도경유국 카자흐스탄 복합물류운송 활성화</li> <li>우리 물류 기업의 카자흐 진출을 돕기 위함</li> <li>신규루트 호르고스(경제특구) 확충 계획 운송시간 단축</li> <li>신속한 통관,환적을 위해 '사전통관 정보시스템' 적극운용</li> </ul> </li> </ul> <div style="text-align: right;">  <p>&lt;출처 : 코리아 쉬핑 가제트&gt;</p> </div>

구분	내용
----	----

무역

※ 브라질 무역투자지구, 내년에는 아시아를 주목한다

- 브라질 무역투자지구, 아시아 국가와의 무역투자 증진을 내년 핵심사업 목표로 설정
- 특히 중국과의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중국 사업팀'을 APEX 내에 별도로 설치

※ 중미 6개국, 프로젝트 신시장 진출 방안 한자리에 논의

-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現의장국), 파나마
- 중미(Central America) 지역은 금융위기, 저유가 등 세계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으로 향후 교역·투자 확대가 예상되는 지역

이번 행사는 지난 11월 한·중미6개국 자유무역협정(FTA) 실질 타결('16.11월)을 계기로 중미지역 관련자를 초청하여 중미지역 프로젝트 정보를 공유하고,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성과활용 등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미란 수출 동향(2016년 1~11월)

(단위: 천 달러)

※ 2016년 한-미란 교역동향

- 2016년 미란 수출 전년 실적 소폭 상회 전망
- 2016년 6월부터 전년동기대비 두자릿수 수출 증가세 지속
- 승용차와 자동차 부품 건설중장비 등이 수출 회복 견인
- 우리나라는 중국, UAE에 이어 대미란 수출 3위를 기록

구분	2016년 1~11월		2015년 1~11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월	164,224	△56.8	379,977	43.5
2월	233,137	△35.1	359,467	47.5
3월	260,827	△42.7	455,234	51.3
4월	192,006	△47.0	362,252	12.0
5월	295,760	△16.9	356,011	△2.8
6월	382,183	68.8	226,415	△40.7
7월	376,003	65.3	227,461	△34.0
8월	317,851	26.6	251,061	△23.6
9월	347,462	4.4	332,711	△24.1
10월	431,072	80.0	239,437	△37.2
11월	319,504	32.9	240,314	△31.3

※ 콜롬비아 수출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비관세장벽

- 화장품, 자동차, 섬유제품 비관세장벽 반드시 확인해야
- 중고 자동차·부품, 중고 섬유제품은 콜롬비아로 수출 불가
- 콜롬비아 업체는 한국 업체가 인비마(INVIMA) 인증을 취득 해주기를 희망함
- 안데스공동체는 각 회원국 재량에 따라 의류 및 구두류 중고품 수입 제한을 허용
- 식약청 인증 철폐 시 한국산 화장품 및 마스크팩 수입률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

<출처 : KOTRA, 주간무역>

구 분	내 용
<p style="text-align: center;"><b>2017 유통시장 전망</b></p>	<p>◆ 온라인 쇼핑 강세 '쑥' 이어진다                      → 2017년에도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쇼핑 시장이 더 뜨거울 것으로 전망</p> <p>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8일 국제회의장에서 '2017 유통산업 전망 세미나'를 개최하고 2017년도 오프라인 보다는 온라인 시장의 전망이 밝다고 전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2016년은 백화점,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에 비해 온라인과 모바일의 성장이 뚜렷했으며 이 같은 흐름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점점 무너지면서 O2O(Online to offline) 비즈니스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 시장은 향후 다양하고 차별화된 경험 제공, MD(상품기획자)의 역량, 고객정보 기반의 추천서비스 등이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p> <p>안태희 AT커니 파트너는 '글로벌 유통 시장동향'에서 아마존 패션 사업을 예시로 들었다. 그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고객군이 정보 확보와 다양한 경험 제공, 온오프라인간의 차별화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또 한국 온라인 쇼핑 시장에는 절대적인 강자가 없어 가격과 배송 그리고 서비스면에서 차별화를 뒤야 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최창희 롯데미래전략센터 상무는 "백화점 산업이 사면초가에 빠져있다"며 "내년 백화점 시장은 스토리텔링 기반의 마케팅과 MD중심의 몰형 백화점의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다"고 전망했다.</p> <p>이 소장은 2017년 유통 키워드로 ▲가성비 ▲엔터테인먼트 ▲혁명 ▲유비쿼터스 ▲개인화서비스를 꼽았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 김윤태 상근 부회장은 온라인쇼핑을 크게 세가지로 구분했다. 티비, 인터넷, 프린팅이 바로 그것. 김 부회장은 "2016년 3분기까지 타업계 대비 온라인 쇼핑의 전년 동기 증감률이 22.1%로 가장 높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모바일 쇼핑시장이 가장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p> <p>티비홈쇼핑의 경우 현재 7개사가 있으며 티커머스 사업자도 5개사가 있다. 최근 5년간 성장세를 살펴보면 지난 2015년 백수오 사건 등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을 제외하곤 꾸준히 플러스 성장하고 있으며 2017년 역시 2016년 대비 5% 이상의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p> <p>PC와 모바일을 합친 인터넷쇼핑은 장밋빛 전망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07년 17만1833개였던 전자상거래 업체수는 지난 2015년 44만4021개까지 늘어났으며 지금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가장 눈여겨 볼 것은 소셜쇼핑 3사(위메프, 쿠팡, 티몬)인데 김 부회장은 "이들 3사는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으로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내년의 성장율은 지금보다는 소폭 둔화될 것이다"고 예상했다.</p>

구 분	내 용								
<p>2017 무역업계 전망</p>	<p>◆ 올해 수출 3.9%, 수입 7.3% 증가 전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美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부정적 요인 산재</li> </ul> <p>- 올해 우리나라 수출은 미국과 주요 신흥국을 중심으로한 세계 수요 회복과 국제유가 상승 등에 힘입어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p> <p>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2016년 수출입 평가 및 2017년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수출은 3.9% 증가한 5165억달러, 수입은 7.3% 증가한 4335억달러로 전망했다. 올해 수출이 3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는 가장 큰 이유는 신흥국 경기가 국제유가 상승과 더불어 점차 개선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신정부 정책변화와 맞물린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미국 금리인상, 중국 구조조정 강화, 브렉시트 협상 난항 가능성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가 신흥국을 비롯한 세계경기 회복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봤다.</p> <p>품목별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등 IT 제품과 원유관련제품(석유화학, 석유제품), 일반기계의 수출이 회복될 전망이다. 반면 선박, 자동차부품 수출은 감소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b>2017년 세계경제 7대 리스크 요인</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40%;"></th> <th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f28b82;">요인별 우리 수출 영향</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저성장(Low Growth)</td> <td>                     ① 세계경제 저성장세 지속                      ② 중국의 구조 조정은 첨단 소비재 산업으로까지 확산                      ③ 석유시장 패권 : OPEC→美 세일업체 ⇒ 저유가 지속 가능성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불확실·불가측성(Uncertainty)</td> <td>                     ④ 신흥국은 경제성장 기초 속에 대외불안 압초도 있어                      ⑤ Hard Brexit 가능성 ⇒ 금융시장 및 EU 체제 불안                      ⑥ 美금리인상, EU/일본 완화적 통화정책 ⇒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보호무역주의(Protectionism)</td> <td>⑦ 美 신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전 세계로 확산 우려</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right; font-size: small;">자료 : 국제무역연구원</p> </div> <p>한편 금년 수출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 부진 속에서도 주력 수출품목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리튬배터리, 보조기억장치(SSD) 등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업그레이드되고, 화장품·의약품 등 브랜드를 가미한 유망 소비재 수출품목의 부상과 중소·벤처기업으로 수출저변이 확대되는 등 우리 수출의 구조가 질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분석했다.</p> <p>국제무역연구원 관계자는 "내년 수출은 완만하게 회복될 전망이나 세계경제 저성장 지속과 미국 신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 확산이 가장 큰 불안요인"이라고 언급하며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도 틈새시장 공략, 과감한 투자, 혁신 상품 개발, 마케팅 다변화 등 차별적인 경영노력과 끊임없는 혁신활동으로 우리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p>		요인별 우리 수출 영향	저성장(Low Growth)	① 세계경제 저성장세 지속 ② 중국의 구조 조정은 첨단 소비재 산업으로까지 확산 ③ 석유시장 패권 : OPEC→美 세일업체 ⇒ 저유가 지속 가능성	불확실·불가측성(Uncertainty)	④ 신흥국은 경제성장 기초 속에 대외불안 압초도 있어 ⑤ Hard Brexit 가능성 ⇒ 금융시장 및 EU 체제 불안 ⑥ 美금리인상, EU/일본 완화적 통화정책 ⇒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보호무역주의(Protectionism)	⑦ 美 신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전 세계로 확산 우려
	요인별 우리 수출 영향								
저성장(Low Growth)	① 세계경제 저성장세 지속 ② 중국의 구조 조정은 첨단 소비재 산업으로까지 확산 ③ 석유시장 패권 : OPEC→美 세일업체 ⇒ 저유가 지속 가능성								
불확실·불가측성(Uncertainty)	④ 신흥국은 경제성장 기초 속에 대외불안 압초도 있어 ⑤ Hard Brexit 가능성 ⇒ 금융시장 및 EU 체제 불안 ⑥ 美금리인상, EU/일본 완화적 통화정책 ⇒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보호무역주의(Protectionism)	⑦ 美 신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전 세계로 확산 우려								

감사합니다

